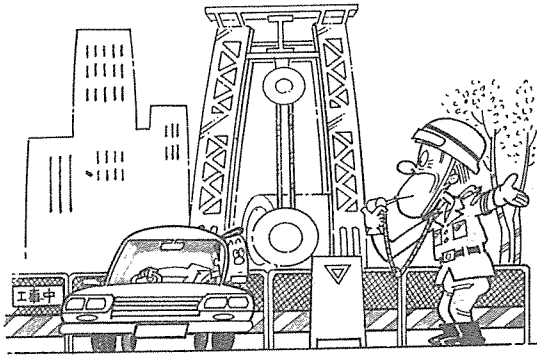


## 공공질서 지키며

##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2)



### 6. 구체적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은 무엇일까?

#### 가. 작업장에서의 안전

- 1) 보안경, 안전모 등 안전용구 착용
- 2)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귀마개를 사용한다.
- 3) 증기, 연기, 먼지, 유해가스 등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마스크, 보안경, 혹은 다른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위험요소가 많은 곳에 장기간 노출되어야 할 경우는 의사와 상의한다.
- 4) 약물, 음주는 줄림, 주의산만을 일으키므로 작업시작 전이나 작업도중에 삼가하고 이미 복용한 경우 기계를 다루지 말아야

한다. 약물의 부작용 가능성을 항상 의사가 물어 알아둔다.

5) 작업시간 변동 : 규칙적으로 밤에만 일하든가 매주, 매월 작업시간이 바뀌면 신체리듬이 깨져서 불면, 심신의 피로, 소화불량 등이 와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3주 간격으로 시간대를 바꾸는 것이 좋고 낮→저녁→밤의 순서에 따르는 것이 좋다.

#### 나. 교통안전

- 1)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기본이다.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에게 횡단보도는 성역이 되어야 한다.
- 2) 안전벨트는 짧은 거리를 갈 때도 반드시 착용한다.



교통안전을 위해서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기본이다.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에게  
횡단보도는  
성역이  
되어야 한다.

3) 18kg미만의 어린이는 어린이용 보조 의자를 사용해야 한다.

4) 방어운전 : 법을 잘 지켜도 다른 운전자가 부주의하면 또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항상 다른 차를 의식하고 위급한 사태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차간거리를 충분히 여유있게 유지하고 시야가 깨끗하게 차안과 창, 거울 등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차선 바꾸기, 방향전환 시에는 눈을 돌려 다른 차를 확인하고 사각지대에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이나 다른 차를 항상 의식해야 한다.

5) 눈, 비가 올때는 감속운행하고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운전하지 않는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여 가능한 한 연료를 가득 채워 둔다. 폭설로 인해 길 중간에서 움직이지 못하여 엔진과 히터를 계속 가동시켜야 할 때 차에서 떠나서는 안되며 차창을 3~5cm 정도 내려 두어서 차내에 일산화탄소가 축적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6) 음주운전은 절대로 안되며, 졸리움이나 반사신경을 느리게 하는 약물 복용시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7) 차안에서 어린이의 소란, 라디오를 크게 켜기, 길밖의 흥미거리로 신경을 써서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매 6개월마다, 혹은 12,000km 운행마다 정기적인 자동차서비스를 받고 항상 타이어 상태를 점검하며 헤드라이트, 브레이크, 자동차유리의 와이퍼, 핸들조정 상태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수리공구, 손전등을 차안에 비치해 두도록 한다.

## 다. 가정내 안전

1) 방바닥, 화장실, 목욕실 바닥 등에서 발이 걸릴 물건을 치우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한다.

2) 날카로운 용구, 부엌칼, 가위 등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3) 뜨거운 주전자, 냄비 등을 놓을 때에는 옆사람에게 알리고 어린이가 가까이 없

는가 확인한다.

4) 불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꺼진 것을 확인하고, 가스불은 이중 잠금을 하고 사용 전에 냄새를 맡아서 가스가 새고 있는지 확인한다. 소화기를 설치해 두고 사용법을 익혀둔다.

5)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은 플러그를 빼놓고 물이 닿지 않게 한다.

6) 전자렌지로 음식을 데울 때 그릇보다 내용물의 온도가 뜨거운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아기 우유를 데울 때나 차를 데워서 마실 때 주의한다.

7) 부엌, 다용도실, 차고 등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물이 있는 곳에 아이를 혼자 남겨두지 않는다.

8) 모든 약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게 보관하고 표시를 명확하게 해 둔다.

9) 목욕, 샤워중이거나 축축한 바닥에 있을 때는 절대로 전원이나 전기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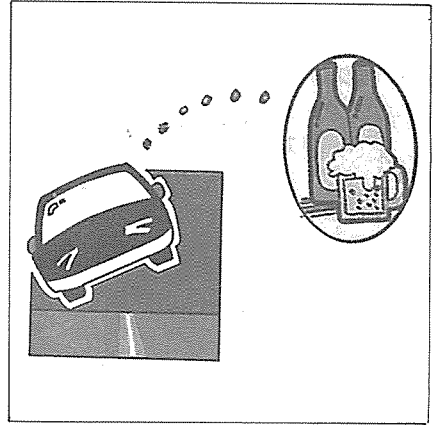
10) 욕조 안에 어린이를 혼자 두지 않는다.

11) 현관, 층계, 욕실 등의 조명을 밝게 한다.

12) 모든 전기용품, 공구의 바른 사용방법을 익혀두고 사고의 가능성 및 응급처치를 온 가족이 잘 알고 있도록 한다.

13) 음식용기에 절대로 독성물질을 담아두어서는 안 된다.

14) 이불, 담요 등이 있는 곳에서 담배불을 주의한다. 전기장판, 전기담요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빼 놓아야 한다.



음주운전은 절대 안되며, 졸리움이나 반사 신경을 느리게 하는 약물 복용시 운전은 해서는 안된다.

각 가정을 단위로 부모가 중심이 되어 술 선수범하여 자녀에게 안전의식을 키우고 사고를 예방하는 습관을 생활화하도록 ‘안전가족운동’을 펼쳐 보는 것도 좋겠다.

## 라. 야외활동시의 안전

1) 청소년기에는 가족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이므로 학교를 중심으로 활동내용에 맞는 자세한 안전교육을 시킨다.

2) 등산, 수영, 운동경기 등 모든 활동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따르는 것을 예상하여 사전에 대비한다.

3) 낮선 지방으로 갈 때는 사전에 현지의 상황을 살펴보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점검한 후 세심한 준비를 하도록 한다. ㉔